법인인가 및 등기를 맞치고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사단법인인가를 받고 그 후 법원에 등기를 하기까지 임원 및 회원들께서 우리 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는 "한국기술사회 건축구조분회"로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기술사회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라는 명칭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회가 「본회를 외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기술사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한국기술사회와의 명칭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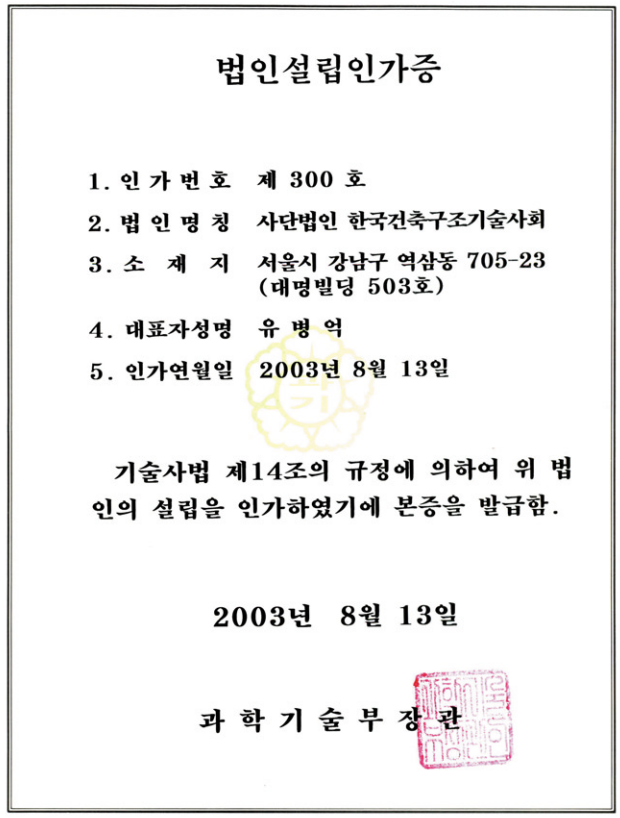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명칭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각 분회가 "한국기술사회○○○○분회"로서는 외부적인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므로, "한국○○○○기술사회"로 표기하기로 전회장(김명년회장) 재직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기술사회는 97개 분야의 기술사분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목만큼이나 분야도 다양하여 한국기술사회 본회입장에서 이러한 이질적이고 전혀 연관이 없는 97개 분야를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현재의 한국기술사회 조직으로나, 실정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편타당한 공통분모만 형식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자연히 심도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히 우리 회를 포함한 각각의 분회가 나름대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관공서와 협의를 하려고 해도 우리회의 실체가 없다보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명실공히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독립된 기관인 법인이 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수한 후진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건축구조기술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목표를 향해 많은 유능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실체가 없다보니, '건축학회'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기준이나, 하중기준, 기타 구조관련 시방서, 배근지침 등에 대해서도, 이젠 우리 회가 주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개정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진기준의 강화 및 건축구조설계 실명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여건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법제화되는 것에 발 맞추어 이러한 건물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 등도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하중조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설계 시 공지침마련도 필요하고, 이러한 리노베이션 및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행위를 위하여 구조설계도서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각 건물마다의 설계조건 및 설계하중의 실명화 등 유지관리단계에서 건축물



법인설립인가증

1. 인 가 번 호 제 300 호
2. 법 인 명 칭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3.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23 (대명빌딩 503호)
4. 대표자성명 유 병 억
5. 인가연월일 2003년 8월 13일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본증을 발급함.

2003년 8월 13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학내에서 건축과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분리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젠 건축구조 역시 건축법에 예속되지 않고, 별도의 건축구조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령제정 등도 필요하고, 구조감리를 위한 '구조기술사보' 제도의 도입과 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다루어져야하고, 구조설계시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존되는 사안들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 등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기술사시험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구조기술사시험을 합격하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침마련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에 우리회의 출범을 널리 알리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일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실체를 알리는데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기술사회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해나가야 겠다.

경과보고

2002. 4.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관 초안 작성(김창호 이사)
2003. 4. ① 정관초안 수정안 (사무국)
② 2003년도 사업계획서
③ 2003년도 수지예산서
④ 재산목록
⑤ 2003년도 회비징수예정증명서
2003. 6. 27 과학기술부에 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그후 2차에 걸쳐 과학기술부 방문(회장, 총무) 정관 수정
2003. 8. 13 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승인 받음
2003. 8. 19 법원에 등기 신청
2003. 8. 21 법원으로부터 등기 받음
2003. 9 초 역삼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예정

법원에 이사로 등재된 회원

유병억, 박영호, 조상규, 한창평, 임용상, 안종신, 김근영, 김종호, 손태호, 김석구, 지성철, 신영수, 김창호, 지홍길, 최준식, 김승철, 이태형, 김원종, 이인영, 강석규, 이도범, 김갑수, 박병순, 김영민, 강동철, 김용남 이상 26명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취득자 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년도	원서접수자	(최종)응시자	최종합격자	합격률
2002	811	626	83	13.3 %
2001	777	631	64	10.1 %
2000	800	638	65	10.2 %
1999	701	604	33	5.5 %
96-98	2452	1671	151	9.0 %
92-95	1059	734	109	14.9 %
84-91	717	550	69	12.5 %
77-83	222	125	31	24.8 %

□ 기술사 자격시험

- 공개기간 : 매회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09:00시)로부터 10일간
- 기타사항
  - 기시행된 시험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방사무소에 책자로 비치되어 있음
  - 기술사 출제관련 문의사항 안내 전화번호 : (02) 3271-9232~9234

위 원 회　활 동

부회장 위원장 연석회의

2003년도 제1차 부회장 / 위원장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 일시: 2003. 7. 8 (화) 오전 7:00

· 장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층 일식집 이로도리

· 토론내용

①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안전기획단에 대한 토목건축영역

위원회별 회의

홍보편집위원회

1. 제5차 회의

· 일시: 2003. 7. 7(월) 18:30

· 장소 : (주)전우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

· 토론내용

① 2003년 9월호 「건축구조기술사회지」 편집방향 토의

② 기사 편집담당위원

Contents	편집담당위원	Contents	편집담당위원
1. 표지사진(커버스토리 포함)	안종신	10. 이모저모	박병순
2. 칼럼	이인영	11. 용어해설	김영민
3. 우리회 소식	박은희	12. Q&A	이인영
4. 한국기술사회 본회소식	박은희	13. 추천도서	이도범
5. 구조시스템	김갑수/ 강동철 김용남/ 원동현	14. Cover Story	김근영
		15. 회원동정	박은희
6. 삼풍백화점 붕괴 8주년	강동철/ 김용남	16.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정보	박은희
7. 기술특집	이도범/ 김근영	17. 연회비납부안내	박은희
8. 법규신설 및 개정	안종신	18.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박은희
9. 다녀와서…	강석규	19. 편집후기	이인영

2. 2. 제6차 회의

· 일시 : 2003. 8. 11(월) 18:30

· 장소 : 사무국

· 토론내용

① 2003년 9월호 「건축구조기술사회지」편집회의